

제 1 교시

국 어

홀수형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8]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 그는 ( )이/가 참 넓다.
- 빨리 시험을 끝내고 ( ) 뺀고 잤으면 좋겠다.
- 승객 6백여 명이 폭설로 열차 안에서 ( )이/가 묶였다.

- ① 발                      ② 눈                      ③ 손                      ④ 배

2. 다음 문장에 사용되지 않은 문장 성분은?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린다.

- ① 주어                      ② 보어
- ③ 목적어                    ④ 서술어

3. 밑줄 친 단어 중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 ① 장미가 참 아름답다.
- ② 하늘이 매우 푸르다.
- ③ 저 산에는 나무가 많다.
- ④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다.

4. 밑줄 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 날도 흑부리 영감은 지계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도 하고 도토리도 주웠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  
 흑부리 영감은 신이 나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지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산 속에 버꾸기 벼쪽 울고.  
 다람쥐와 친구 하니 얼마나 좋소.

- ① 덩실덩실 춤을 추며
- ② 표정은 매우 만족스럽게
- ③ 걸음을 흥겹게 옮기면서
- ④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면서

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 ① 지금 즉시 대답해!
- ② 그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 ③ 나는 열살난 어린이입니다.
- ④ 청군 대 백군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6.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친구’라는 말은 ‘ㅈ-ㅣ-ㄴ-ㄱ-ㅍ-ㅍ’라는 다섯 개의 소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이 중에서 하나의 소리만 바뀌어도 이 낱말의 본래 뜻이 바뀌게 된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 )이라고 한다.

- ① 음운                      ② 음절
- ③ 어절                      ④ 문장

7. ㉠~㉣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 물은 음식을 만들 때와, 목욕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등 일상 생활 용수로 쓰인다. ㉡ 일상 생활 하수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저수지에 가두어 두었던 물은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된다. ㉣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 이용하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8.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운동장이 끝나는 곳에 펼쳐진 강물의 색깔은 볼 때마다 다르다. 지금은 녹색 비단을 잘 다려 펼쳐 놓은 것 같다. 바람이 이는지 물빛이 찬란하게 반짝인다. 저렇게 작은 물빛들이 모여서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강이 된다. 그 강물 위로 하얀 학들이 천천히 날아간다.

- 김용택,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

- ① 학                      ② 강물                      ③ 바람                      ④ 운동장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우 : 형님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민들레꽃이 남아 있어! (㉠ 춨을 내던지고, 민들레꽃을 꺾어 든다.) 이 꽃을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 형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

형 : 벽 너머 저 쪽에도 민들레꽃이 피어 있겠지…….

아우 : 형님이 보고 싶어!

형 : 동생 얼굴이 보고 싶구나!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비가 그치면서 ㉢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

형 :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저 벽 너머로 전하지?

아우 : 비가 그치고 산들바람이 부는군.

형 : 저 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가만있어 봐. 민들레꽃은 씨를 뱉으면 어떻게 되지?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잖아?

아우 : 햇빛이 비치니까 샛노란 민들레꽃이 더 예쁘게 보여.

형 : 이 꽃을 꺾어서 벽 너머로 던져 주어야지. 동생이 ㉣ 민들레꽃을 보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아우 : 형님께 이 꽃을 드리겠어. 벽 너머의 형님이 이 꽃을 받으면, 동생인 나를 생각하겠지.

- 이강백, 「들판에서」 -

15. 위와 같은 글의 종류는?

- ① 시
- ② 희곡
- ③ 수필
- ④ 소설

16. 위 글에서 ‘형제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소재는?

- ① ㉠
- ② ㉡
- ③ ㉢
- ④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은 일제의 온갖 위협과 유혹에도 죽는 날까지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온갖 고초 속에서도 광복과 독립의 그 날, 역사의 새벽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광복을 일 년 앞둔 어느 날, ‘심우장’ 차가운 냉돌 위에서 끝내 역사의 큰 별은 떨어지고 말았다.

<중략>

비록 불우한 삶 속에서 선생은 갔지만, 그 불타는 조국애는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빛날 것이다. 또, 선생의 고결한 지절(志節)은 ‘풍란화(風蘭花) 매운 향내’\*로서 겨레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향기를 더해 갈 것이다.

- 김재홍, 「만해 한용운」 -

\* ‘풍란화 매운 향내’: 정인보(鄭寅普)가 한용운을 추모하여 지은 시조의 첫 구절.

17. 위와 같은 글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사실적
- ② 교훈적
- ③ 음악적
- ④ 서사적

18. 위 글에서 ‘한용운’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알맞은 것은?

- ① 효심이 깊다.
- ② 우애가 두텁다.
- ③ 학구열이 높다.
- ④ 조국애가 강하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어를 정해서 쓰면, 모든 국민이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통합이 용이해진다. 또, 표준어를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화 생활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국어 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준어가 아닌 말은 모두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 중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을 ㉠ 사회 방언 또는 계급 방언이라고 한다.

<중략>

사회 방언은 언어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이가 나타난 것인데, 대체로 계층, 세대, 성별, 학력, 직업 등이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사회 방언의 예를 들면, ‘물개’는 군인들이 ‘해군’을 의미하는 말로 쓰며, ‘뉘다, 건지다’는 신문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사를 취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 성낙수, 「표준어와 방언」 -

19. 위 글에서 말하는 ‘표준어 사용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어 순화에 기여한다.
- ② 국민 통합이 용이해진다.
- ③ 의사 소통에 장애가 된다.
- ④ 교육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20. ㉠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계층
- ② 성별
- ③ 지역
- ④ 학력

